

문부만하는 학생의 특별기

예비역협의회 위상과 역할을 진단한다

도 두세학년의 차이로 진부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런 학년이 나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현재 재학생이 주로 활동하는 학회나 동아리에 직접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조차 개인적인 참여에 불과하고 의욕만이나 정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자연스레 멀어지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처한 예비사회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만(?) 급성장해온 후배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2,3학년에는 자신도 활발한 학생회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해왔더라도 활동의 후지가 길어진만큼 변화된 사회상과 대학사회에 대한 새삼스러운 경험을 보며 무관심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양캠퍼스 재학생의 30%정도를 차지하는 예비역의 위상과 그들의 조직일 수 있는 예비역협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은 현재재학생이든 예비역이든 생각케되는 문제일 것이다. 또한 최근들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중산층운동이나 '애국적 사회진출' 등에 대한 고민은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두번은 찾아들게 마련이 아닐까.

우리학교의 경우 크게 87년을 중심으로 대학과 학생운동, 학생자치활동의 상황이 급변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 예비역은 그저 소외계층이나 일체의 학생자치활동이나 특별활동을 배제한 공부만 하는 '예비역형' 또는 '예비역개리'만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다. 사회현실과 대학에 대한 또다른 '시각'에서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군사문화의 경험을 강하게 받았던 군복무기

간의 패배주의적인, 현실주의적인 사고는 대학에 돌아와 다시 한번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단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예비역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대학생과의 교류가 힘들다. 학생자치활동에 무관심해진다. 강의실과 도서관 외엔 학내에서 있을 곳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한다. 그러나 학내복지와 교육환경, 그리고 사회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같이 대화해보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한다.

이와 더불어 학회가 현재재학생만의 조직이 아닌 모든 학생의 조직이려면 학생회활동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예비역이라서...

이에 예비역의 자체 조직인 예

비역협의회의(이하예협) 건설논의는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우리학교에서도 서울캠퍼스의 경우 문리대 국문과, 사학과, 물리학과 등 몇개 학과가 예협이 구성되었고, 정경대도 몇개학과가 건설되었거나 준비중에 있다.

반면 수원캠퍼스는 중앙단위의 예협조직이 있고 각 단대, 과별로 조직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인원의 30%, 남학생의 반 정도가 그들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를 자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 또는 기구의 필요성이 예비역에게서 먼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협건설논의는 사업의 공백과 결함의 미약으로 대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못하다. 조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주체의 부재와 사업의 부재로 친목위주로 체육행사만 하거나 모임정도를 마련하는 정도에

에서 더욱 강화된 과예협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대는 경영학과가 이미 건설되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없는 실정이며, 산대는 입학과를 중심으로 과예협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1학기 대표적인 사업인 '문부대입소거부투쟁'을 통해 조직적인 성과물을 중심으로 현재 '예비역 문부대입소 거부 대책위원회'를 예비역협의회의로 전환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활동과 각과단위의 예협에 대한 문제제기의 결과 예협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가 확산되고 조직건설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예협이 없더라도 학내동우회, 예비역동우회(약대 약향 등)가 친목위주의 모임을 갖고 있다. 예협이 건설된 정의과의 경우 학내별 간사를 통해 여론이 수렴되고 있으며, 예협이 학생회

교수·학생 논의기구 활성화

자본주의적 생활문화 양식이 확대될수록 수능과 제2의 사이는 계약관계에 의한 지식과 등 록금의 교환관계로 변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와 학생이 학문과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있다면 이것조차도 반쪽과 불신을 가지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학기초는 4년마다 실시되는 전공교과목 개편에 학생이 참여해 '학습권'의 요구를 증폭시킨 시기였다.

교수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서로 상충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전공개편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학생들의 전체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얼마만큼 교수·학생이 협의하는가는 차치하더라도 전공교과목 개편에 교수와 학생(일부 과에서는 대학원생도 포함)이 논의

교수와 학생은 서로 다른 존재적 특성과 학문, 경험, 연령 등의 차이로 서로의 입장을 극복하지 못한 채 상호이해 부족으로 편견과 불신이 쌓여왔다고 볼 수 있다.

학과와 일상적인 문제와 교육 환경 및 교과교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은 거의 모든 과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약학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실습장비를 2화길로 늘이는데 대한 논의와 과의 재배분 제 해결을 위한 상설적인 교학협의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문리대, 가정대 등은 공간부족과 교수층원에 대한 교학간담회를 수시로 해왔다.

또한 교수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주의적 형식으로 운영해나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몇개 학과에서

교학간담회의 상설화논의가 진행 중인 학과가 많지만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또 과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교섭위를 포함한 양캠퍼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중앙회의는 학교당국과 회의를 거쳐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과대표기구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조광수(국문·3)교섭위원장은 과대표기구의 위상에 대해 "간담회 형태는 심의·의결권이 없으므로 교수·학생대표가 정제적으로 만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당국이나 교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는 있으나 학사행정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교권의 고유영역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학과문제에 대한 임시협의는 근시안적 대응 전공개편 회의 이후 상설화 필요성 커져

해서 반영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학교의 교과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될 사항이지만 최소한의 교수·학생협의의를 거쳐 상정된 것인만큼 전공개편이 교수·학생 어느 한쪽의 필요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전공개편작업이 끝난후 몇개학과에서 교수·학생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그간 양캠퍼스 각 학과는 과내 사안이 생길때마다 학과장 등 교수를 찾아다니기에 급급했고 교수는 강의실이 아니고는 생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대화할 장이 없었다. 서로 대화와 협의가 부족한 과정에서

교수들이 교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교학간담회의 형식도 거부하고 있어 아직 교권에 대한 강한 벽을 느낄 수 있다. 교학간담회 등 논의기구는 학생의 지나친 학사행정참여는 아닐 것이며, 학생이나 학생대표에게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학간담회를 불필요하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서울캠퍼스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교학간담회 형식의 교수·학생협의기구의 구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교수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문제가 된 곳도 있었다. 현재 각과별로 전공교과개편을 위한 교학간담회를 2차례이상 10여차례까지 가졌다. 이에 대해 전공개편이 마무리된 이후

교학간담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될 일이지만 교학간담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통한 발전, 강화를 이뤄낸다면 근대들어 교수와 학생의 상호목과 질서를 극복하고 과발전과 구성원의 상호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는 대표기구 또는 과발전추진위원회까지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보적인, 기본적인 협의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학간담회의 상설화를 통한 교수·학생의 논의의 활성화를 일시 방법의 면담의 차이를 넘어서 과발전과 과구성원간의 유대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진민환 기자)

보건소 제반시설 유명무실

수원캠퍼스 보건소의 문제점

I. 수원캠퍼스 보건소의 역할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진료 및 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학내에 설치된 보건소는 학생들의 건강 및 공중보건의 담당이 그 주임무라 하겠다.

특히 수원캠퍼스의 경우 학교 주변에 약국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교내 보건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원캠퍼스 보건소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역할이다.

이는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예방의학의 홍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로 학생들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수행하는 역할이다.

불모지라고 불릴 만큼 수원캠퍼스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볼때 우선 시간대 별로 오전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는 학생들이 언제라도 곧바로 치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야간에도 응급치료를 할수있는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II. 보건소의 현상향

현재 학내보건소는 기존의 체



홍보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이용 저조 계속적인 시설확충으로 진료환경 갖추어야

육교육관에서 학생회관2층으로 위치를 이전하였다.

또한 이전에 따라 기존의 회복실과 진료실만이 있는 상태에서 학생대기실이 마련됨으로써 좁은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인원은 간호사 두명이 오전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상주해 있으며, 의사가 매주 월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수요일 1시부터 3

악을 조제하여 치료하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며 주사는 의사가 직접 놓고있다.

요즘에는 감기(호흡기질환), 외상(소화기계통)으로 인하여 보건소를 찾는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소 진료가 끝난후에 갑자기 다치거나 아픈학생들을 위해 구급장치를 마련하여 배치해 놓고있으며 급할경우 동수원

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보건소와 꼭 필요할때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의사가 진료할시에 학생들의 진료횟수가 저조한 것은 이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보건소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홍보부족에 있다.

이에대해 영문과의 한 학생은 "수업을 듣다가 배가 갑자기 아파서 보건소를 찾았지만 보건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동안 찾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단편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학생회관으로 이전한 후 보건소를 찾는 학생들 다수가 이전의 체육교육관 자리에서 들렀다가 다시 찾아오는 것도 그 한 예이다.

또한 의학의 불모지라는 열악

한 환경에 처해있는 수원캠퍼스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현재 3일로 되어 있는 출근진료를 전문별로 나누어 행해지는 전문의 진료 시간을 좀더 늘려야 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보건소상주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반면에 학생들을 위한 보건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규보건소간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즉 병이 완쾌될 때까지 보건소를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다른학생들을 위해서 좀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가 지역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의사진료시간 등 보건소에서 하는 일과 질병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학생들도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이용을 해야 할 것이다.

(오세운 기자)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생활·산업부문

- 프라스틱 1사업부: 하이사지, UBR, SMC물량크, 온돌파이프, 자동차부품 등
- 프라스틱 2사업부: 모노롬, 렉스도, 노브롬, 카메타일, 민속장판, 비닐벽지 등
- 생활용품사업부: 수퍼타이, 하모니, 페라도치약, 장갑상자, 알로에비누, 풍풍 등
- 화장품사업부: 아르도프, 마데르, 에상스, 헤라나루빈스타인, 카이저 등
- 정밀화학사업부: 분산염료, 무공해농약원제, 계면활성제, 그라스 화이버 등
- 의약품사업부: 인터페론,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식품첨가제 등

화학부문

- 화성 1사업부: PVC 스트레이트 레진, 페이스트 레진, PVC 컴파운드 등
- 화성 2사업부: DOP, 우탄올, 부탄올, 이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 화성 3사업부: ABS 레진, SAN 레진, PS 레진, EPS 레진 등
-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PMMA, PBT,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컴파운드 등
- 폴리머첨가제사업부: 선행제, 자외선 흡수제, 초저발포, 폴리머첨가제 등

국내외 합작회사

- *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 * Lucky Fiber Glass Corporation
- * Lucky Dow Chemical Ltd. (EPOXY)
- * Lucky D. C. Silicone Co., Ltd.
- * Lucky Hoechst Corp. (HMP)
- *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 * Henkel Rika Sdn. Bhd. (Malaysia)
- * Lucky Palmco Sdn. Bhd. (Malaysia)
- *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

럭키 LUCKY LTD.